

기본급 184,900원 인상!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회사의 노동안전보건 의무 확립!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지부교섭 속보

4호

2023.05.30(화)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박종우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7차 지부교섭_회사 제시안 없음]

왕복 3시간! 교섭 7분!

3차례에 걸친 질의응답 후 빈손

올해 지부교섭은 예전과 다르게 질의응답을 3차례나 진행했다. 회사측의 요청으로 질의응답을 늘렸고 그만큼 심도있게 고민할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질의응답이 끝난 후 열린 7차 교섭에서 회사측 교섭위원들은 빈손으로 교섭에 참석했다. 교섭위원들은 25일(목) 충주 KDK에서 열린 교섭에 참석하기 위해 왕복 3시간을 길거리에서 허비했다. 교섭은 고작 7분만에 끝났다.

지부 요구안 전혀 부담없다!

지부 요구안으로 제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회사측이 부담가질 이유가 없다. 전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정보를

노사가 공유하고 감축 계획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회사가 안전확보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내실있게 하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 등 신속한 조치를 하자는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회사들이 하고 있거나 전혀 부담없는 내용들 뿐이다.

차기교섭에서는 제시안 반드시 제출해야

6월 1일(목) 코스모링크에서 열릴 8차 교섭에서는 반드시 회사측 제시안이 나와야 한다. 노측 교섭위원들을 우롱할 생각이 아니라면 차기교섭에서는 논의할만한 수준의 내용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5/25(목) 교섭위원 공동실천 활동> 현대성우메탈, 봉양농협 부당노동행위 처벌하라!



7차 교섭 속기록

회사가 부담가질 요구안 없다

노 : 오늘 7차 교섭이다. 사용자 요구로 3차례 질의응답 진행했다. 이제는 사용자 안을 제시할 때가 된 것 같다. 안 제출해달라.

사 :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다. 작금의 상황이 많이 나쁘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은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힘을 합쳐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원만하게 꾸러갈 수 있게 부탁한다. 회사도 종업원이 없으면 존립 못한다. 노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치는 게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도 큰 이견없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빠른 시일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

노 : 회사 측에서 안을 준비했으면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사 : 사측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시하도록 시간을 좀 더 달라.

노 :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중앙교섭 눈치 보지말고 지부교섭에서 답을 빨리 내자. 올해 어려운 요구안 없다. 회사가 부담갈 요구안은 제출하지 않았다. 사용자측은 논의 빨리 하시면 좋겠다. 교섭을 매년 해봐도 느끼는게 한결 같다. 회사는 어쨌든 안을 제출하지 않으려고 한다. 회사가 논의라도 했는지 의문이다. 교섭 몇분 전에 잠깐 만나서 논의했다고 하는거냐?

지금 논의된 내용이 여기까지고 더 논의해보자고 제안을 해야지. 노조가 단체행동을 해야 안을 제출할거냐? 사측이 변화해야 하는거 아닌가? 중앙 눈치 보지말고 지부교섭에서 논의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나? 충주까지 왕복 3시간을 길에서 버리면 낭비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교섭하면 어떡하냐? 다음 교섭에서는 공통된 안을 갖고 와야 된다. 사측도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자. 20~30년 전이랑 똑같다. 앞으로는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오늘 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다음 차수에는 안을 준비해달라. 지부교섭이 빠르게 마무리되게 하자.

*** 차기 교섭 : 6/1(목) 14시30분 코스모링크**